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김은정*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치매의 병리학적 의미
- III. 망각의 의미로서의 치매
- IV. 치매 서사-반성의 서사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의 현대소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치매’를 단순한 노년소설의 소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작가가 ‘치매’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주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여러 작품들에 나타나는 치매의 의미를 질병으로서의 의미인 병리학적 의미, 서사적 특징으로서의 의미인 망각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치매 서사의 주제론적 특징인 반성의 의미로 분류 고찰하였다.

질병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때 치매는 ‘인격 이상’의 증후를 보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가족 관계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점을 추출하였다. 이 경우 치매의 서사는 훼손되어 가는 인격과 이상 증세에 초점이 놓이게 되는데 이는 곧 치매의 병리학적 핵심 의미가 훼손된 자아의 상징임을 뜻한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인 망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때 치매를 다룬 서사는 서사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망각하고 싶은 순간을 실제로 망각한 상태로 일생을 살아온 초점 대상 노인들이 치매를 앓게 되는 순간 망각한 순간이 고스란히 나타남으로써 서사의 중심이 과거로 이동하게 된다.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치매의 서사는 주제론적으로는 대부분 반성의 서사로서 주로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회한과 반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화자가 치매 어머니의 딸인 경우엔 지금까지 페미니즘 문학에서 어머니를 거부하던 딸이 어머니 삶에 대한 이해와 화해의 결말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치매는 잊고 살았던 이전의 가치관으로의 복귀를 (또는) 가치관의 회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어 : 치매, 병리학적 의미, 망각의 의미, 반성의 서사, 자아 훼손

I. 들어가며

현대소설에서 질병의 의미는 문학적 상상력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즉 질병은 현대 문학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나 비유 대상이며, 새로운 주제학의 영역에서 상징적 주제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질병은 문학적으로 중요한 징표이자 시대사적 징후의 표상으로 자리한다고 하겠다.¹⁾ 또한 질병의 비유화는 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도덕·정치 영역 등에서도 두루 이용된다. 질병은 타락한 정치·사회 인간성과 부당한 문명을 비판하거나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을 비판하는 은유적 수사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

문학, 특히 현대 문학은 삶과 인간적 조건의 손상이나 사회적 정치적인 이상 현상의 비유나 상징으로서 질병을 원용하여 질병 현상을 문학화하거나 주제화한다. 말하자면 질병의 비유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병리 애호의 미학은 문학과 질병의 친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 질병은 현대의 지배적인 주제를 표현하거나 강조하며 현대소설에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³⁾

1) 이재선(2007),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 지성사, p.13.

2) 위의 책, pp.14~15.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소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치매'의 의미를 고찰하고 '치매'가 은유화하는 상징을 밝혀내는 것은 문학적 징표를 찾는 작업 뿐 아니라 시대사적 징후를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즉 '치매'가 중심 제재가 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치매'를 통해 표출하고자 하는 서사의 상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매'와 연관되어 작품을 고찰할 때 '치매'는 노인성 질환의 일종으로 다루며, 이러한 '치매'가 문학의 대상이 될 때, 주로 노년 소설의 특징⁴⁾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즉 '치매' 자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배제된 채, 노년소설의 대표적인 한 부류로만 평가되어 왔다. 또한 노년문학에서 '치매'가 다루어질 때, 그 서사의 중심은 '치매'에 걸린 당사자보다는 치매 환자의 보호자의 어려움에 그 초점이 주로 맞추어져 왔다. 그런 까닭으로 '치매'가 은유화하고 있는 시대적 징후나 '치매' 자체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확산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치매'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최근 작품으로 이청준의 <축제> <꽃지고 강물 흘러>, <조만득씨>, 조경란의 <달걀>, <달팽이에게>, <밤이 깊었네>, 정지아의 <봄날 오후, 과부 셋>, 김우남의 <치매일기>, 박완서의 <포말의 집>, <집보기는 끝났다>, <환각의 나비>, <후남아 밥 먹어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해경의 <길 위의 집>, 김인숙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 최인호의 <둘의 초상>,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 백가흠의 <구두>, 전성태의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박민규의 <낮잠>, 서하진의 <착한 가족>, 박정규의 <에코르체 혹은 보이지 않는 남자>, 윤정모의 <꾸야삼촌>, 이승우의 <검은나무>, <방>

3) Meyers(1995), Disease and the Novel 1880~1960, st. Martin's Press, p.112.

4) 김윤식의 『한국문학 속의 노인성문학』, 최명숙의 『한국현대노년소설 연구』 등의 논의와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의 노년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인 『한국노년문학 1』, 『한국노년문학 2』, 『한국노년문학 3』 등의 논의가 있다.

등 실로 많은 작품이 있다.

이렇게 최근에 ‘치매’가 중심이 된 작품이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것은 ‘치매’라는 상징을 통해 주제화하고자하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측면에서 각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치매’의 상징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고는 우선 치매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치매의 병리적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치매의 질병으로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주로 치매의 증상이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부분과 이러한 각종 증상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망각’의 상징으로서 치매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는 ‘망각’의 증상이 각 작품에서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하는 부분과 함께 소설사적 의미에서 망각이 차지하는 역할의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은유적 의미로서의 치매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성의 서사로서 치매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치매의 증상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입장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본고의 작업은 치매의 증상과 증상의 의미, 그리고 증상을 통한 평가의 측면을 분류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본고의 고찰은 궁극적으로 ‘치매’의 의미를 파악하고 ‘치매’의 상징성과 시대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치매의 병리학적 의미

치매란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증후군이며 이로 인한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계산 능력, 학습 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치매의 여러 유형들 중 노인성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알쯔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치매 환자는 특히 생활과 관련하여 기억력, 추상적 사고 능력, 판단력 및 충동자제 능력, 언어 기능 등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치매'는 과거에는 '노망'이라고 불리며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동일한 질병이 '노망'이라고 불릴 때의 사회적 인식은 주로 기본적으로 늙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증세를 '치매'라는 질병의 이름으로 명시할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며, 그 해결의 주체가 가족을 넘어서서 '병원'과 같은 공공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⁶⁾

먼저 치매의 주 증상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치매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며, 장기기억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단기기억력의 상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기억장애로 인하여 치매노인들은 의사소통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약속시간이나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기억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사실을 꾸며 말하는 작화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오래 전 습득한 기억 중 장기기억도 장애를 입어 자신의 인적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5) 한경희 외 9명(2002),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p.31.

6) 천선영(2001), 『노망과 치매 사이: 치매에 대한 담론 형성/확산 과정의 사회적 함의』,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발표논문』, 한국사회학회, p.4.

7) 송영희(2002),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p.5.

또 치매로 인해 성격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무감동이다. 이 전에는 타인을 배려하던 사람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적이던 사람이 냉담해지고, 활기가 없어지며, 발병 이전보다 자주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고 완고해지는 등의 부적절한 성격 행동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점차 나타난다고 한다.⁸⁾

‘치매’를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 문학에서 보여주는 치매의 질병적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보편적 인식으로 치매를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엔 노인들의 질병에 관한 노출과 질병을 통해 행해지는 부차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가 있다. 예컨대, 치매 환자가 겪는 고통이나 두려움, 육체적 심리적 위축과 상실감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불편과 희생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치매’의 특징인 ‘정신을 놓아버림’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타인들이 치매에 걸린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환자 자체의 훼손된 자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으로는 치매 환자 본인은 치매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불행한 노년 삶의 단면들로 제공되고, 또한 그 증상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좌절과 고통이 되며 갈등과 절망과 같은 시련의 상징으로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결국 ‘치매’라는 노인성 질병은 가장 고질적인 노인 문제로 대두되며, 이것은 노년소설의 전형적인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의 노인 부양문제라 할 수 있는데,⁹⁾ ‘치매’가 갈등의 중심이 되어 발생하는 노인

8) 권중돈 외 5명, 『치매와 가족』, pp.335~341.

9) 김연경(2004),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39.

부양문제를 다룬 작품으로는 박완서의 <포말의 집>, <집보기는 끝났다>와 이승우의 <방>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작품의 서술자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며느리라는 점이다. 박완서의 <포말의 집>, <집보기는 끝났다>와 같은 작품에서는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한다. 이 점은 '치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며느리가 가지는 치매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주로 '치매'의 증상으로 야기되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며느리가 느끼는 감정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노인혐오증의 형태로까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때 '치매'라는 질병이 보여주는 의미는 치매 노인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서술자의 입장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치매'가 상징하는 것은 '가족 해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는 시어머님의 악쓰시는 소리를 힘겹게 견디며 결코 그것을 우리 집안의 일상의 화평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중략) 점점 나는 시어머님을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한 사람이 고통 받고 있을 때 같이 고통 받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라면,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가족으로서의 자격의 포기였다. 나는 어느 틈에 시어머님을 가족에서 따돌려, 가족과 적대관계에 놓고 대결하고 있었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건 생경한 목소리가 아니라 가족 아닌 사람이 가족 중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허구한 날 군식구를 섬기는 고통이었다. (박완서,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p.345)¹⁰⁾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치매가 보여주는 병리적 증상은 이유 없는 '악쓰

10) 박완서(2006),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p.345. 이하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

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며느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위한 것이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뀐 인격을 보여주는 역할로 밖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치매의 병리학적 증상으로는 악쓰는 소리, 끊임없는 식탐(<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옷 벗고 돌아다니기, 물건 감추기, 양변기 속의 물로 세수하기(<포말의 집>)등이 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은 바로 '인격 변화'라는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동들을 지켜보며 감내해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작품이 다루어짐으로써 '치매' 노인은 가족의 짐이며, 치매는 가족 해체를 야기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치매 노인의 개별적인 자질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서술 대상인 노인이 '치매'를 앓기 전에 어떠한 개성을 가진 자인지 하는 부분은 무시된 채, '치매' 증세의 진행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의 괴로움만이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치매'의 특징인 '정신을 놓아버림'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타인들이 치매에 걸린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환자 자체의 훼손된 자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우남의 <치매일기>, 조정란의 <달팽이에게>, 박민규의 <낮잠>, 정지아의 <봄날 오후, 과부 셋>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치매가 다른 타인(가족)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가의 측면보다는 치매를 앓고 있는 인물에 초점이 가 있다. 김우남의 <치매일기>는 치매에 걸린 노인 당사자가 서술자이며, 박민규의 <낮잠>은 치매에 걸린 첫사랑 연인을 지켜보는 서술자, 조정란의 <달팽이에게>는 치매에 걸린 큰 이모와 이모를 간호하는 작은 이모를 지켜보는 조카가 서술자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특성은 서술 대상인 노인의 '치매'를 앓기 전의 예전 모습이나 타인에 의해 판단되는 치매 증상 속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함으로써 질병으로서의 '치매'가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아 훼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내 맞은 편에 앉은, 아니, 내가 그 맞은 편에 앉은. 김이선이 있다. 동갑이며 인근의 여고를 다녔는데 현재는 치매를 앓고 있다. 이선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게다가 선셋증후군이 있어 해질녘 이후에 배회가 심한 편이다. 수줍음이 많고 공부를 끝잘 하던 모범생이었다. (중략) 첫사랑이었다. 인근여고에서 그녀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청아한 피부와 단정한 외모... 우수 어린 커다란 눈동자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략)

이선에게 섭섭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다. 치매 환자를 볼 만큼 봐왔기에 그녀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치매는 퇴행이다. 향문기의 유아들이 똥이나 그런 단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듯, 치매 환자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다. (박민규, <낮잠>, pp.263~270)¹¹⁾

이렇게 '치매'가 발병하기 전의 이선의 모습과 현재 이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선이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첫사랑의 요양원 보증금까지 지불해 가며 혼인 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이라 할 수 있는 첫사랑과의 추억의 장소인 학교 운동장을 찾은 순간, 이미 첫사랑 이선은 옷에 대변을 싸고도 못 느낄 정도의 상태라는 에피소드를 통해 추억과 현실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괴리가 바로 질병으로서의 '치매'가 보여주는 훼손된 자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우남의 <치매일기>의 경우는 치매에 걸린 노인인 은봉 할아버지가 서술자이다. 은봉 할아버지는 실제로는 치매가 호전되어 자신은 치매 요양소의 풍경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고 요양소의 인간관계까지를 분석하는 인물이다. 다만 그는 의사표현을 정상인처럼 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 은봉 할아버지의 증상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작품

11) 박민규(2008), 『2008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pp.263~270. 이하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

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봉 할아버지가 젖은 기저귀를 빼내려고 애를 쓰는 행위를 요양소 직원들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인식해 그를 중환자실로 옮기려고 한다. 여기에서 은봉 할아버지에 대한 요양소 간병인들의 인식과 서술자 자신인 은봉 할아버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서술은 엄청난 괴리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이러한 서술상의 괴리를 통해 자아 훼손의 안타까움이 부각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외’의 문제까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의 경우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치매 노인 복지 시설이라는 점은 치매가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며, 가족과 분리되는 ‘소외’를 감당해야만 할 정도의 심각한 인격 훼손이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치매의 병리적인 의미로서의 특징은 자아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자아 훼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망각의 의미로서의 치매

서구 철학에서 ‘기억’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다. 기억이란 한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현재와 관련짓는 정신적 행위이자 시간 경험의 하나라는 것이다.¹²⁾ 이러한 점에서 서사는 본질적으로 ‘기억’을 담보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이라는 이야기 양식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타자의 체험, 혹은 타자적 체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담겨

12) 고봉준(2004), 「서사, 기억과 망각의 갈림길-박민규, 김영하, 성석제의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53호, p.77.

있다고 볼 때¹³⁾ 기억의 대척점에 서 있는 '망각'이란 서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주체는 바로 그 '기억'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망각'이 질병의 형태인 '치매'를 통해 드러날 때, 일반적인 치매 환자의 경우엔 최근의 기억부터 망각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반해 잊지 못할 상흔을 가진 인물이 치매의 증상을 보일 때, 그 인물은 평생 '망각'한 듯한 상흔이 치매의 순간에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평생 억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인다.

프로이트는 기억으로부터 탈락되는 사소한 체험의 망각과 구별되는 좀더 구성적인 망각을 트라우마(상흔)와 억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화¹⁴⁾ 했는데, 그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체험에 대한 기억은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무의식적 행위로 표출되는데, 이것을 순화하고 올바르게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구성 작업, 곧 기억 작업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렇게 순화된 과거는 망각을 통해서, 곧 새로운 기억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승우의 <검은나무>, 김원일의 <나는 누구인가>, 박정규의 <에코르 체 혹은 보이지 않는 남자> 등은 '치매'라는 질병을 통해 기억을 통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이승우의 <검은나무>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치마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누르리고 앉아

13) 윤대석(2007), 「서사를 통한 기억의 억압과 기억의 분유」, 『현대소설연구』 34, p.79.

14)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pp.69~74.

오줌을 누는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20년 동안 당신의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유폐되어 있던 그 나무가 당신의 정신이 느슨해진 한순간을 노려 불쑥 떠오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꿈 위로 20년 동안 잠겨 있던 검은 감나무가 떠오르는 순간, 당신이 그 불타는 기억으로부터 받았을 화상의 정도가 어떠했을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봉인되었던 시간의 뚜껑에 금이 가자 그때까지 사생결단으로 붙잡고 있던 의식의 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놓아 버렸던 거지요. (이승우, <검은 나무>, p.334)¹⁵⁾

이렇게 어머니의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는 행위는 나와 어머니의 기억 속에 ‘억압’되어 있던 오랜 트라우마인 집이 불타버린 사건과 관련이 된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내가 외가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와 어머니가 목격한 것은 집이 불타고 있고, 의붓아버지는 벌거벗은 채 방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열 네 살의 누이가 타버린 집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끔찍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 바로 억압이 된다. 어머니는 그 사건을 잊은 듯 20년을 살아왔고, 의붓아버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평생을 타버린 집에서 검게 탄 감나무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결국 감나무 밑에서 생을 마감한다.

어머니의 방뇨 행위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불’과 연관되어 있다. 20년 동안 억압하고 있던 과거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불을 끄는 일이며, 그 불을 끄기 위한 원초적인 행위로 오랜 시간의 방뇨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트라우마는 의식이 일시적으로 망각한 무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반드시 귀환하는 것임

15) 이승우, <검은나무>(2002), 『2002 올해의 문제 소설』, 푸른사상, p.334,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페이지만을 명시.

을 증명했다.¹⁶⁾ 여기에서 '치매'는 바로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검은나무>의 어머니는 현재의 기억부터 잃어가는 '치매'의 일반적인 증세와는 달리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 가장 망각하고 싶은 한 순간에 사로잡히게 되는 특이한 증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은나무>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이러한 증세는 '치매'를 통해 기존의 서사에서 보여주는 기억을 통한 이야기의 구성이 아니라 망각을 통한 서사가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 의식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서사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김원일의 연작소설 <나는 누구인가>에도 역시 잘 나타난다.

<나는 누구인가>는 노인 병원에서 귀부인으로 통하던 한여사의 이야기이다. 한여사는 언제나 자신을 잘 꾸미며 교양 있는 취미와 기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병원 식구들에게 지나친 화장과 귀부인 같은 행동으로 '광대매'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정신 초롱하고 염치 차리는' 인물로 평가 되고 있다. 한여사는 아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박사이며, 사별한 노회장과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노인 병원에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한여사가 '치매'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한여사의 과거는 평소 한여사가 보여주던 행동과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한여사가 평소에 경멸하던 모든 것이 한여사의 일생에 그대로 억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한여사는 치매 증상의 하나인 알 수 없는 발작(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토설하게 된다.

건조한 질 속이 따갑고 쓰리다. 그네의 흐릿한 의식에 여러 사람이 쭈군대

16) 고봉준(2004), 앞의 논문, p.78.

는 말소리들이 들린다. 망측하게, 손가락은 거기다 왜 쭈서박고 있지? 맨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자빠졌다니, 잠결에 귀신이 한여사를 불러냈다 봐. (중략) 무슨 힘으로 기어서 예까지 왔을까? 저 피딱지 봐. 무르팍이 온통 까졌어. 정강이뼈가 보이네. 얼마나 아플까. 찌찌. 노망들면 아픈 걸 어떻게 알아. (김원일, <나는 누구인가>, pp.45~46)¹⁷⁾

이렇게 한여사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태와 함께 한여사의 과거 또한 엄청난 억압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여사의 몸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그대로 읊긴 것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한여사는 일제시대 정신대로 끌려갔고, 육이오 전쟁 중에는 양공주 생활을 했고, 그 생활 중에 혼혈인 아들을 낳아 입양을 보낸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한여사가 억압하고 있던 이러한 상처들은 치매의 증세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한여사의 억압 속에 감추어졌던 인물들은 한여사의 육체를 스쳐간 남자들¹⁸⁾이라 할 수 있다. 몸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남자들의 기억을 통해 한여사는 자신의 억압된 상처를 괴로워한다.

최근의 기억부터 점차 소멸해 가던 한여사의 마지막은 접아가로 불리던 어린 시절이다. 접아가의 기억으로 생을 마감하며 한여사의 입을 통해 나온 마지막 말은 ‘나는 누구야? 내가 도대체 누구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여사가 자신을 짓밟은 일생의 고통스런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망각한 세월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치매의 상징적인 ‘자아 상실’의 질병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인간은 기억하고 망각하는 사실들을 통해 자신을 정

17) 김원일(2001),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 지성사, pp.45~46.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시.

18) 이 기억들 속에서는 제과점 사장 모리, 생물학자 한 교수, 음악 선생, 산부인과 전문의, 땅부자 주먹코, 청년 흥, 일흔 일곱 살의 노회장 등이다.

의하며, 기억의 개조는 정체성의 개조를 가져온다”¹⁹⁾고 할 때, 그동안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망각을 강요당해 왔던 개별적 기억을 치매를 통해 복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고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한여사의 마지막 말은 결국 자신의 망각된 과거를 복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치매의 상징성은 자아 훼손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망각된 기억의 부분을 드러나게 하여 자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는 장치로도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인간의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세대의 정체성 구조에 결코 동화될 수 없는 ‘괴양’의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아 정체성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자기동일성의 논리라면, 트라우마는 언제나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리하여 언제나 부정하거나 회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즉 달리 말하면 상흔(트라우마)은 치료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지 그것 자체가 나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⁰⁾ 그런 점에서 ‘치매’ 상태에서 보이는 <검은나무>의 어머니의 행동이나 <나는 누구인가>의 한여사의 행동은 결코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치매’의 이상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상실된 자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설이라는 이야기 양식 자체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타자의 체험 혹은 타자적 체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때 ‘치매’의 의미는 기존의 소설 양식 자체를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즉 ‘기억’을 중심으로

19) Assmann(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 출판부, p.78.

20) 고봉준(2004), 앞의 논문, p.81.

한 서사에서 ‘망각’을 중심으로 한 서사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서사가 ‘기억을 통한 이야기’의 기능으로 고통을 치유하는 기능을 가졌다면 ‘치매’를 통한 서사는 ‘망각’의 이야기가 어떠한 순간에 고통의 기억으로 떠오르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¹⁾ 즉 영원한 망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망각으로 억압한 고통이 정신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체성 상실’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치매’가 이러한 망각의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드러내는 서사가 된다는 것이다.

IV. 치매 서사 - 반성의 서사

‘치매’가 주로 고통에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해, 치매 상태를 지켜보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치매’ 증세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작품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관점은 부모님의 치매 증세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지금까지 부모님의 험겨운 생애에 대한 회한과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서사의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매’를 반성의 의미로 접근할 때 우리 문학에서 보여주는 치매 서사는 대부분 자식으로서의 회한을 다룬 반성적 의미의 서사가 주류를 이룬다. 주로 어머니의 전 생애에 대한 회한이 주류를 이루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1) 이것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의 댐은 이야기의 흐름의 낙차가 충분히 클 경우, 그러니까 그 흐름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지복한 망각의 바다로 쓸어가 버릴 정도로 클 경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Assmann, 앞의 책, p.79)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상 어머니의 삶 속에서 온갖 수난과 역경 및 가난이 울음이 드러난 경우를 감안한 설정이겠지만, 작가 스스로 어머니의 삶에 대한 각별한 사모의 정과 어머니의 인생관을 작품을 통해 구현함을 밝히는 경우가²²⁾ 많다. 이청준의 <축제>, <꽃지고 강물 흘러>, 최인호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전성태의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어머니의 '치매'는 고통으로 돌아가시기 전의 회한을 자극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작품 자체가 소설적 장치를 최소화하여 어머니에 대한 실제 회고록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에서 '치매'는 그 자체의 특징보다는 신산한 어머니 삶의 마지막 고달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고달픔을 통해 화자인 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반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일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있었다. “엄마!”하고 부르면, “오야”하고 대답했고 “밥 좀 쥐”하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와 밥은 마치 뇌에 저장된 기억이 아니라 가슴 같은 곳에 박히거나 뒤꿈치의 굳은살 같은, 기억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 같았다.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자식들을 잊어먹어도 그 말에는 여전히 정상인처럼 반응했다. (전성태,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p.119)²³⁾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개구리처럼 오그라붙으시고 노망이 들으셔도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어머니의 시든 젖을 빨면서 지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그 임종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울지도 않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불안을 내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최인호,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p.106)

22) 전홍남(2010), 『문순태 선생의 서재를 찾아 ‘생오지’에서 문학의 향기를 맡고, 나눔의 정신을 배우다』, 『소설시대』 18호, 평민사, pp.65~75.

23) 박민규(2010), 『아침의 문』, 문학사상, p.119.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시.

이렇게 어머니의 치매를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기억을 한다는 자체에 감동하고, 자신이 변해버린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낯섬의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강하게 가진 서사로 해석될 수 있다.

‘반성’의 서사로서 치매를 다루는 또 다른 유형은 대부분 딸이 서술자가 되어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를 돌보는 작품들이다.²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이혜경의 <길 위의 집>, 김인숙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여성 작가의 작품으로 기존의 페미니즘 작품들이 어머니의 생에 대한 거부감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들 작품들에서는 ‘치매’를 계기로 어머니의 삶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삶에 대한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성의 서사로서 ‘치매’가 가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와 자식의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질병에서도 찾을 수 없는 ‘치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한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발생하는 ‘기억의 잃어버림’이라는 치매 증세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던 최근의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성될 수도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즉 어머니는 발병 후 어머니가 되기 이전의 상태 즉 ‘딸’의 상태로 돌아가고²⁵⁾ 이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자식(특히 딸)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⁶⁾ 이렇게 치매에 걸린

24) 딸이 서술자가 되었을 때 보여 주는 독특한 경향에 관해서는 김은정(2012),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한국문학논총』 제61집) 참고.

25) 실제로 자신을 돌보는 딸을 ‘어머니’라고 호명하는 여성 치매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6) 물론 이러한 경우 아들이 서술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본고는 딸 서술자 작품으로만 그 논의를 한정한다.

어머니와 자식의 역할이 바뀌는 경험을 통해 자식은 진정으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딸이 서술자가 된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치매'를 통해 잃었던 어머니의 과거, 혹은 어머니 주체성의 복원²⁷⁾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모두 어머니의 지난 세월에 대한 숭고한 찬미와 더불어 어머니를 '치매'에 이르게 한 다른 가족들의 뼈아픈 반성이 드러남으로써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복권을 이루는 화해로운 결말을 도출하고 있다. 즉 이것은 '어머니처럼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딸에 의해 정정되는 '어머니의 인생도 가치 있었다'는 진술에서 보여주는 화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엄마처럼 못 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딸인 내가 이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다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세월의 갈피 어딘가에 파묻혀버렸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을까?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고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에게 말할테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p.262)

이렇게 직접적인 반성과 고백이 등장하거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다툼을 매개로 하여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치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27)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여성 해방을 가장 포괄적인 모토로 내세우면서 여성문학의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페미니즘 문학은 대체로 딸의 서사로서, 이들 텍스트 속에서 어머니는 거세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는 헌신과 인내의 이름으로 말소되거나, 가부장제 질서에 충실한 보수 집단의 하나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닫고 이에서 벗어나려는 여성 작가들에게 어머니는 벗어 버려야 할 굴레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서강여성문학연구회(1998),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p.24)

것을 드러내는 방법²⁸⁾ 등으로 어머니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중심에는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그러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치매를 다룬 이러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실종이 중심 모티프로 등장하고 실종된 어머니를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죄책감과 반성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장치²⁹⁾일 뿐 아니라 끝내 실종된 어머니를 찾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설정³⁰⁾이나 현재 상태를 망각하고 있는 어머니가 새로운 어머니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설정³¹⁾을 보여줌으로써 자식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고 어머니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해의 방식 또한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반성이 가장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치매의 주제론적 특징인 반성의 서사 형식이 보여주는 치매의 시대적 의미는 ‘효’가 지존의 가치관이었던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노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당시의 치매는 그 증상이 어떠한 간에 질병이 아닌 노령화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망에 걸린 부모는 자식들의 봉양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치매는 질병의 대상이며, 치매에 걸린 부모는 봉양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기

28) <길 위의 집>의 경우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9) 물론 ‘기억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치매의 증상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집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30)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경우 귀신이 된 어머니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어머니가 행복하게 일생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1)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의 경우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공간을 찾았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는 하지만 적극적인 수용은 되지 못하는 가치관 변화의 마지막 세대의 고민이 반영된 소재가 바로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문학의 대상으로서 질병이 그 시대의 상황과 의미를 상징화하고 있다고 할 때, 문학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문학을 통해 시대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최근의 현대소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치매'를 단순한 노년소설의 소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치매'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주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여러 작품들에 나타나는 치매의 의미를 살펴보고 치매의 질병으로서의 의미인 병리학적 의미와 서사적 특징으로서의 의미인 망각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치매 서사의 주제론적 특징인 반성의 의미 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치매는 단순히 노년기의 대표적인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매'가 질병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때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인 '인격 이상'의 증후를 보이며, 이러한 증후는 사회적 문제로 '가족 관계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점을 추출하였다. 변해버린 인격으로 인해 치매 노인은 엄청난 짐 덩어리로만 인식되고 있었고, 치매 증상은 훼손되어 가는 인격과 이상 증세에 초점이 있었다. 즉 병리적인 상징으로 치매가 나타내는 가장 큰 의미는 훼손된 자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인 망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때, 치매를 다룬

서사는 서사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치매는 기존의 서사 방식과 다른 방식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서사 방식이 기억과 회상을 통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치매를 통한 서사에서는 망각을 통한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망각하고 싶은 순간을 실제로 망각한 상태로 일생을 살아온 초점 대상인 노인들이 치매를 앓게 되는 순간 망각한 세월의 실체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방식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치매의 서사는 주제론적으로는 대부분이 반성의 의미가 강한 반성의 서사라고 할 수 있었다. 주로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회한과 반성의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독특하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서술하는 딸이 화자인 경우엔 지금까지 페미니즘 문학에서 어머니를 거부하던 딸이 어머니 삶에 대한 이해와 화해의 결말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성과 회한, 그리고 화해의 모습을 마지막 결말로 제시함으로써 치매는 잊고 살았던 이전의 가치관으로의 회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 소설 작품들에서 ‘치매’가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치매라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징이 현재의 시대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치매의 병리적인 상징에서 보여주는 자아의 훼손과 인격 파괴의 모습은 바로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인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기능이 붕괴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일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징이 ‘기억’이라고 할 때 치매가 주는 병리적인 특징은 바로 자아 정체성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사 문법에 있어서는 망각의 형태로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치매의 독특한 병리적 특징 중의 하나인 과거의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현재의 기억을 잃어가는 증상이 문학적인 상징으로 형상화될 때, 시간의

혼돈과 시간의 착종이라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현대의 시간은 무수히 다른 의미들로 붕괴되고 착종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치매'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문학적 상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역시 망각의 서사로서 치매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의 주제론적 특징인 반성의 서사 형식이 보여주는 치매의 의미는 '효'가 지존의 가치관이었던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노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당시의 치매는 그 증상이 어떠했던 간에 질병이 아닌 노령화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망에 걸린 부모는 자식들의 봉양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치매는 질병의 대상이며, 치매에 걸린 부모는 봉양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하지만 적극적인 수용은 되지 못하는 가치관 변화의 마지막 세대의 고민이 반영된 소재가 바로 '치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치매는 단순히 노인성 질병으로서 노인문학의 한 소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독특한 병리적 상징으로 인해 현대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면의 중심에는 '치매'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 주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이 바로 최근 소설에서 '치매'가 서사적 주제로 등장하는 작품이 대거 생산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우남(2010), 『치매일기』, 『굿바이, 굿바이』, 문예출판사.
김원일(2001), 『나는 누구인가』,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 지성사.
김인숙(1998), 『거울에 관한 이야기』,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박민규(2008), 『낮잠』, 『2008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박완서(1998), 『환각의 나비』,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_____(2006), 『포말의 집』, 『집보기는 끝났다』,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신경숙(2008), 『엄마를 부탁해』, 창비.
이승우(2002), 『검은나무』, 『2002 올해의 문제 소설』, 푸른사상.
이청준(2003), 『축제』, 열림원.
_____(2004), 『꽃지고 강물 흘러』, 문이당.
이혜경(1995), 『길위의 집』, 민음사.
전성태(2010),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2010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최인호(2004),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여백.

2. 단행본

- 고정자(2007), 『현대사회와 가족』, 동아대학교 출판부, pp.124~157.
권중돈 외 5명(2002), 『치매와 가족』, 학지사, pp.335~341.
이윤로 · 박종한(1996), 『치매의 원인과 치료』, 학문사, pp.13~30.
이은희(2010), 『하리하리의 몸 이야기』, 해나무, pp.123~135.
이재선(2007),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 지성사, pp.13~20.
전홍만(2011),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pp.113~117.
한경희 외 9명(2002),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pp.31~38.
한국여성연구소(2005), 『여성의 몸』, 창비, pp.328~340.
Assmann, Aleida(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 출판부, p.78.
Elisabeth, Badinter(2009), 『만들어진 모성』, 동녘, pp.211~338.
Mari, Oka(2004), 『기억 · 서사』, 소명출판, pp.147~157.
Meyers, Jeffrey(1985), 『Disease and the Novel 1880-1960』, st. Martin's Press,
pp.112~114.
Northrup, Christiane(2000),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한문화, pp.401~403.

- Sontag, Susan(2002),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pp.32~33.
 Thurer, Shari L.(1997), 『어머니의 신화』, 까치, pp.309~401.
 Walby, Sylvia(1998), 『가부장제이론』, 이화여대 출판부, pp.166~192.

3. 논문

- 고봉준(2004), 『서사, 기억과 망각의 갈림길』, 『오늘의 문예비평』 53, pp.77~94.
 공임순(1998), 『오이디푸스적 시선 속에 동요하는 글쓰기』,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pp.270~278.
 구번일(2001), 『모성의 수용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수(2000), 『여성 삶의 복원에 대하여』,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pp.268~277.
 김수진(1999),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pp.314~325.
 김연경(2004),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식(2007), 『한국문학 속의 노인성문학』, 『문학사의 새 영역』, 강, pp.336~366.
 김은정(2012),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pp.303~327.
 김혜경(2004),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선경(1998), 『어머니의 딸, 딸의 어머니, 그 대물림』,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pp.153~157.
 박현식·손남미(2008),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노인 소외 양상에 관한 연구』, 『가정관 리학회기타 간행물』, pp.105~122.
 백지연(2005), 『망각과 기억의 사이』, 『창작과비평』 129, pp.328~340.
 성미라(2012), 『치매 노인 주부양자의 질병인식과정』,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영희(2002),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신은실(2006), 『"문학"-치유적인 망각과 치유적인 회상 사이』, 『문화과학』 46, pp.253~261.
 오테영(2010), 『해방기 기억과 망각의 정치학』,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30~40.
 윤대석(2007), 『서사를 통한 기억의 억압과 분유』, 『현대소설연구』 34, pp.77~90.
 이선미(2004),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 『상허

- 학보』 12호, pp.403~432.
- 이인애(2009), 『치매 어머니와 함께 음악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딸의 경험』,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영 외 3명(2004), 『전쟁, 기억, 여성 정체성』, 『카프카 연구』 제12집, pp.271~291.
- 이중우·손세호·권순학(2001), 『망각에 의한 기억』,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1, pp.208~212.
- 임옥희(2000), 『이야기군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pp.129~145.
- 전홍남(2007),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2, pp.33~66.
- _____(2010), 『문순태 선생의 서재를 찾아-‘생오지’에서 문학의 향기를 맡고, 나눔의 정신을 배우다』, 『소설시대』 18호, 평민사, pp.65~75.
- _____(2010),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9, pp.111~130.
- _____(2012), 『문순태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인상’과 소통의 방식』, 『국어문학』 52, pp.287~309.
- _____(2011),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pp.113~117.
- 정영자(2005),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나이먹기』, 『여성연구논집』 제16집, pp.16~29.
- 조희경(2002),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일』의 복원을 위하여-박완서론』, 『한국노년문학 3』, 푸른사상, pp.93~102.
- 천선영(2001), 『노망과 치매 사이 :치매에 대한 담론의 형성/확산 정의 사회적 함의』,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한국사회학회.
- 최명숙(2005), 『한국현대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실(1993), 『‘텍스트화한 역사’ 혹은 ‘떠 있는 텍스트 만들기’와 그 의미 연쇄망』, 『문학과 사회』 21, pp.286~304.

Abstract

The Meaning of Dementia in the Modern Novels

Kim, Eun-jung

This study researched the narrative theme which is exposed by the theme *dementia* in the recent novels. The theme of novels can be found by means of regarding the theme *dementia* as a symbolic meaning, not as the mere subject matter of old age novels.

Dementias in the novel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meaning as disease, meaning as oblivion, and meaning as reflection. In this study, we subdivided each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or, or the method of treating the theme *dementia* in the novels.

In the case of *dementia* as disease, it symbolizes the dissolution of family, or the damaged self, which are differentiated as the types of narrators. In the case of *dementia* as oblivion, the narration of the novel is different with the existing types of narration, that is, the forgotten memories come back, and compose the narration of the novel. And, in the case of *dementia* as reflection, it suggests the reflection of sons and daughters, by means of their regretting the past, or understanding their own mother.

Key words : dementia, meaning as disease, meaning as oblivion, narration as reflection, The ego undermines

김은정

소속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74-1번지

전화번호: 010-4337-2078

전자우편: ejung2070@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